



2/0/2/1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시장 진출전략

KOTRA 중남미지역본부 | kotra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남미 시장 진출전략

CONTENTS

I 주요 이슈 및 전망

II 시장 변화 양상

III 기회요인과 진출전략

IV 수출 및 투자 성공 · 실패 사례

부록1 주요국별 수출 유망품목

부록2 2021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I

주요 이슈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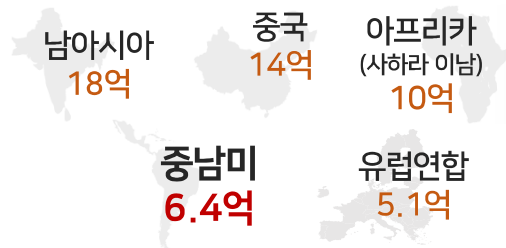
1. 시장특성 및 전략적 가치

중남미

중남미 시장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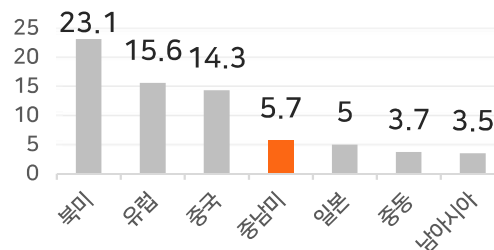
중남미 인구

(단위: 명)



중남미 GDP

(단위: 조 달러)



* 자료원: World Bank, '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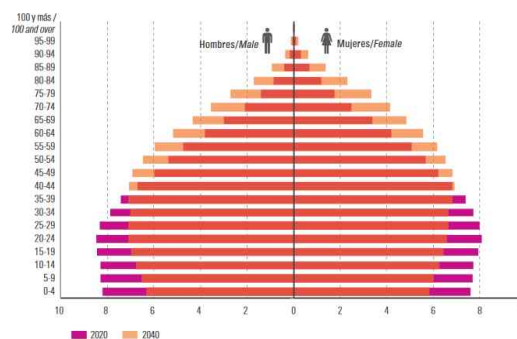
중산층 비중 변화

* 자료원: Euromonitor (2019)



인구 피라미드

* 자료원: Statistical Yearbook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2019)



젊은 소비자 증가로 내수 시장 확대 지속

- ✓ **[젊은 소비층]** 평균연령 29.1세의 젊은 소비시장
 - ✓ **[중산층 확대]** 교육수준 향상 등의 요인으로 실질임금 인상, 소득수준 증가
 - ✓ **[높은 소비성향]** 중산층의 꾸준한 증가, 소득 대비 저축 수준 낮고 소비 성향 높아 과거 가격 경쟁력 우선
- 품질, 디자인 등도 구매 시 중요 요소

중남미 국가간

지리, 언어, 문화, 심리적으로 유사

단일시장 통합 마케팅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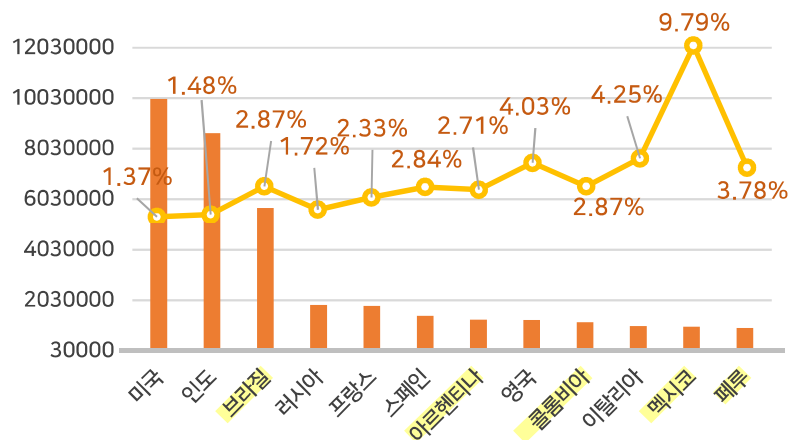
2. 코로나19 현황

중남미

▶ 국가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 미흡한 정부의 방역대책, 코로나19 관련 인식 부족 등으로 역내 급속히 확산 중

☑ 중남미 국가들의 보건의료 지출 수준은 GDP의 2.2%에 불과하여 WHO 권고보다 매우 낮은 수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상위국



* %는 치사율을 나타냄

* 자료원 : 한국질병관리청, 2020.11.12

전세계 코로나19 확진 현황

순위	국가	확진자 수
1	미국	9,990,620
2	인도	8,636,011
3	브라질	5,675,032
4	러시아	1,836,960
5	프랑스	1,794,717
6	스페인	1,398,613
7	아르헨티나	1,250,499
8	영국	1,233,779
9	콜롬비아	1,149,063
10	이탈리아	995,463
11	멕시코	972,785
12	페루	923,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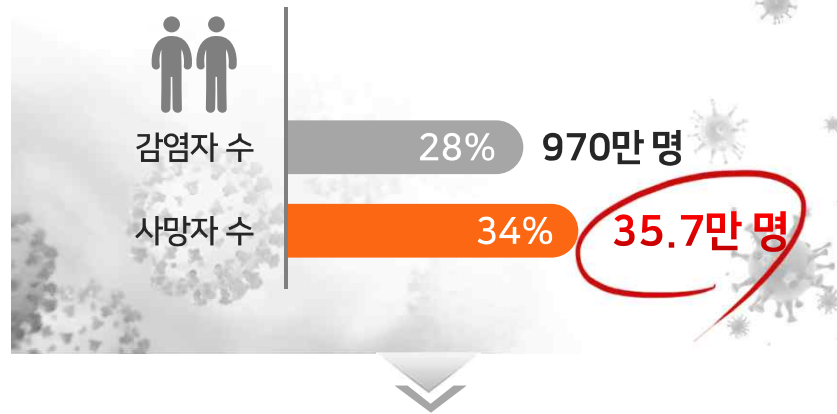
* 자료원 : 한국질병관리청, 2020.11.12

2. 코로나19 현황

중남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명·경제적 타격 받은 중남미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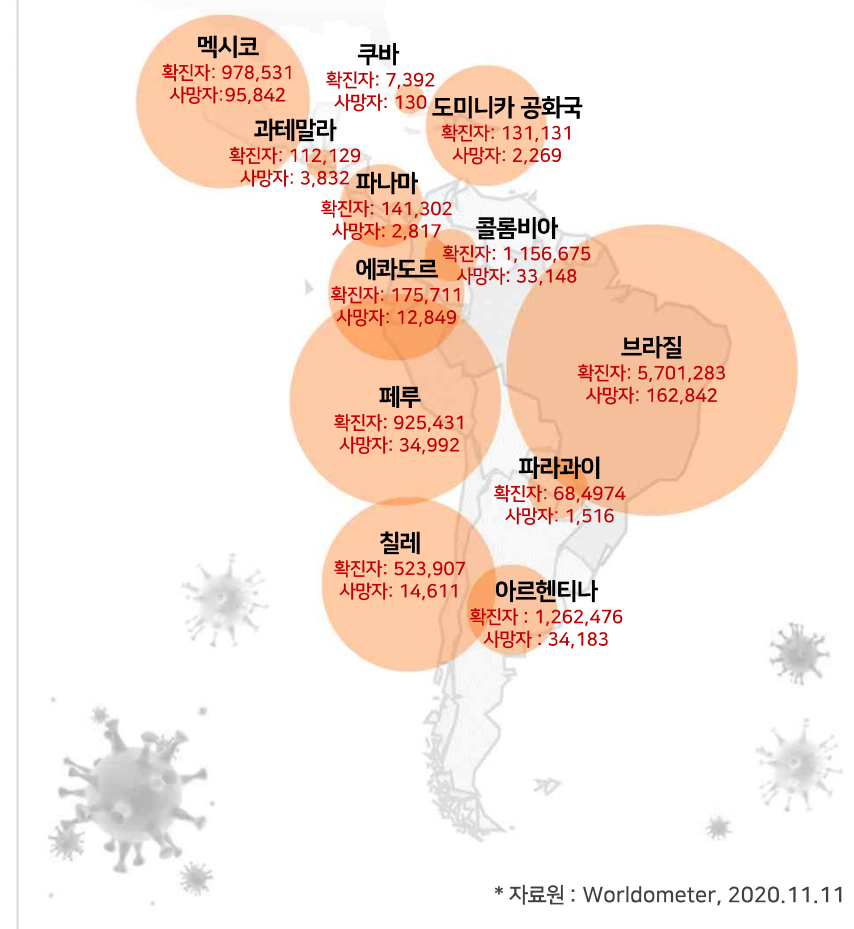
* 전세계 감염·확진 수 대비 비율 2020.10.06 기준



불평등한 소득분배, 빈곤 수준 등 기존 문제점을 더욱 악화

- ✓ '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기관별 평균 △6~9%, 코로나19 이전 경제수준 회복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
 - 글로벌 교역 급감 • 공급망 붕괴 • 환율 상승
 - 사회적 격리 및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관광업 직격타
- ✓ 생계유지 문제로 봉쇄 기반의 초기 방역 모델 실패
- ✓ 높은 비정규직 비중으로 더욱 크게 느껴지는 생활고 수준
 - 역내 실업 급증으로 소득 감소 및 내수 위축

국가별 확진자 현황



3. 정치 환경

중남미

코로나19, 중남미 내 새로운 정치적 위기 초래

-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심화
- ✓ 공공보건 열악 및 의료환경 낙후로 인해 대응에 차질을 겪으면서 정세 불안 심화
- ✓ 코로나19로 인한 중남미 내 정치·사회·경제적 위기는 향후 몇 년간 지속 예상
- ✓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통화 정책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



[에콰도르] '21.4 대선 예정

- ➔ '21.2월 대선 실시, 5월 신임 대통령 취임 예정
- ➔ '20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현정부 정책기조

마약퇴치, 미국과의 공조, FTA 확대, 태평양동맹 가입,
IMF 합의에 따른 경제개혁 추진

우파 후보가 승리할 경우 현 정책기조 유지·강화
반대의 경우, 정책기조 변경 불가피



30% 이상의 부동층으로 접전 예상



[페루] '21.4 대선 예정

- ➔ '21.4월 대선 및 총선 동시 실시

주요 이슈

국민들이 생각하는 다음 정권의 해결과제 1순위는 반부패, 2순위는
코로나로 인한 실업·경제위기로 대선 및 총선의 주된 이슈가 될 전망

현지 언론은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서민 현금지원 정책 등의
인기에 힘입어 진보 측이 유리할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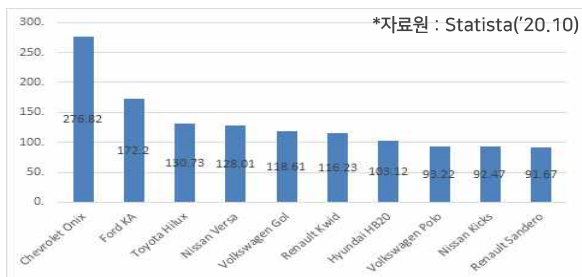
국민 인기에 힘입어 진보진영이 우세

4. 산업 환경

중남미

- ✓ 연간 700만대 이상의 자동차 생산 거점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 주요 생산국
- ✓ GM, Volkswagen, Ford, BMW 등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중남미에 생산 공장을 두고 對美 수출용 또는 내수용 자동차 생산 중
- ✓ 현재는 소형 승용차 위주로 많이 판매되나 향후 SUV, 픽업트럭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

<중남미 최대 판매 승용차 모델 (단위 :천 대)>



- ✓ 각국 정부가 친환경 자동차 및 전기차 산업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해당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 '20.7.1 USMCA 발효로 북미시장 진출을 위해 자동차 관련 기업이 멕시코로 투자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
- ✓ 최근에는 중국의 OEM 기업들이 북미시장을 겨냥하여 중남미로의 이전 추세

의료기기
산업

자동차
산업

인프라
분야

- ✓ '19년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143억 달러, 향후 5년간 연평균 7% 이상 성장률 기대
- ✓ 코로나19 대응을 계기로 각국은 의료·보건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투입 확대 추진중
- ✓ 진단영상 기기, 호흡기 치료 장비, 치과용 장비, 정형외과 및 보철 장치 등의 수요 꾸준히 증가 기대



- ✓ [페루] 오데브레시 스캔들로 침체된 건설 인프라 시장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 ✓ [도미니카공화국] 민간투자법 제정을 통해 프로젝트 관련 절차를 보장하여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이를 통한 고용 확대와 경제 활력 제고 기대
- ✓ [파나마] 주재국의 국제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하철, 교량, 전력, 공항, 도로, 전력 등 물류 인프라 프로젝트 적극 추진 중
- ✓ [에콰도르] 국가발전계획에 따른 중장기적 인프라 개발 정책 추진 중으로, 에너지, 항만, 공항, 플랜트, 도시 개발을 위한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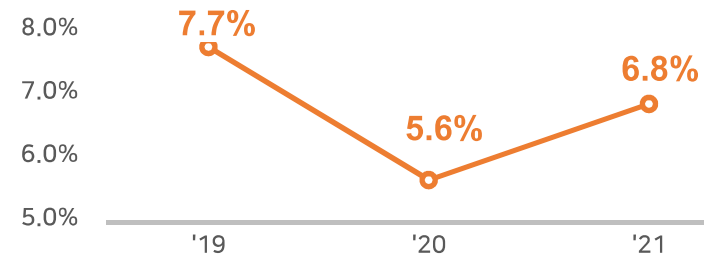
5. 경제 전망

중남미

▶ 코로나19 직격탄 맞은 중남미 경제, 2020년 경제성장률 -8.1%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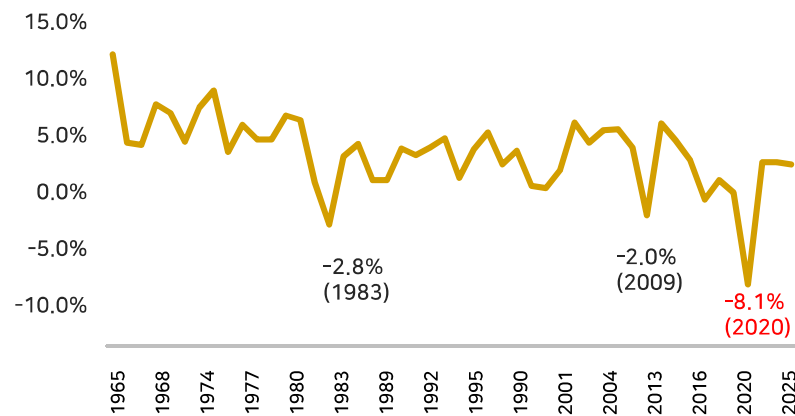
- ✓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해외수요 감소 및 원자재 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코로나19 이전의 경기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 소요 전망
- 사업 신뢰도 하락, 자본 유출 가속화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비 위축, 관광산업 붕괴로 인한 타격으로 경기 침체 지속
- 사회적 불평등 심화 및 실업률 급증으로 중남미의 빈곤과 빈부격차 가속화

물가상승률



* 자료원 : IMF, 2020년 10월

경제성장률



* 자료원 : IMF, 2020년 11월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중남미	1.4	1.1	0.0	-8.1	3.6	2.7
멕시코	2.1	2.2	-0.3	-9.0	3.5	2.3
브라질	1.3	1.3	1.1	-5.8	2.8	2.3
칠레	1.2	4.0	1.1	-6.0	4.5	3.2
페루	2.5	4.0	2.2	-13.9	7.3	5.0
콜롬비아	1.4	2.5	3.3	-8.2	4.0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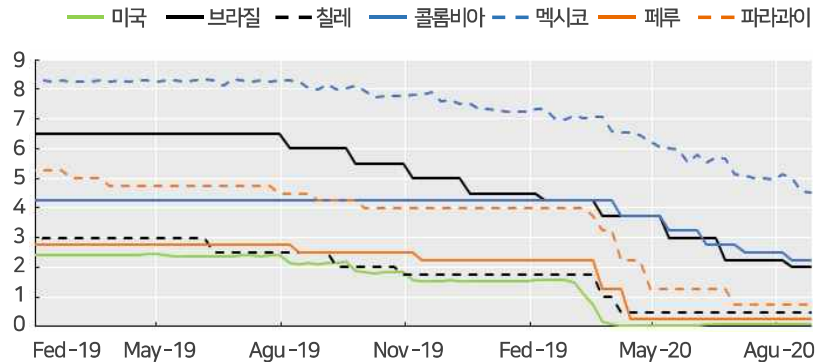
* 자료원 : IMF, 2020년 11월

6. 소비 및 투자부문 전망

중남미

중남미 주요국 금리인하 기초

* 자료원 : OECD, 20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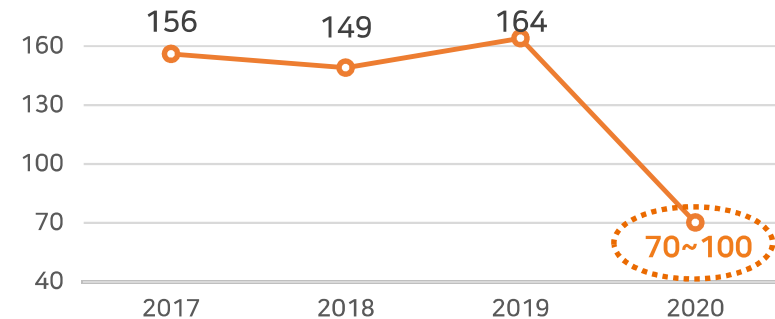
☑️ 코로나19 사태 관련 규제들이 완화되고 일자리가 보호·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소비 심리 소폭 회복 전망

-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금리인하 지속에 따라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제대로 될 경우, 민간소비심리도 소폭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실업 증가, 소득수준 감소 등에 따라 소비자의 우선 소비가 생필품, 의료 분야로 집중되어 가전, 자동차 등 비필수적인 소비는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경향 존재
- 건강에 대한 염려로 관광 수요는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위축 전망

對중남미 FDI 현황

* 자료원 : UNCTAD

(단위 : 십억 달러)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 지속 및 투자자 신뢰도 하락으로 '20년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역내기업 투자 위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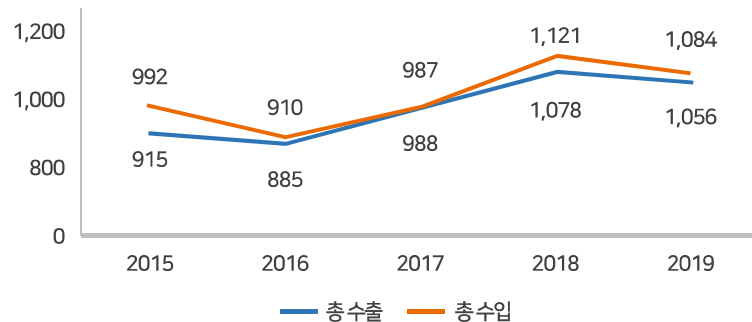
- '20년 對중남미 외국인직접투자(FDI)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 예상
-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등의 투자유치실적 상승에 힘입어 '18년 대비 '19년에 10% 성장했으나, 팬데믹 여파로 2020년에는 투자 유입이 절반 이상 감소할 전망

7. 교역부문 전망

중남미

중남미 교역액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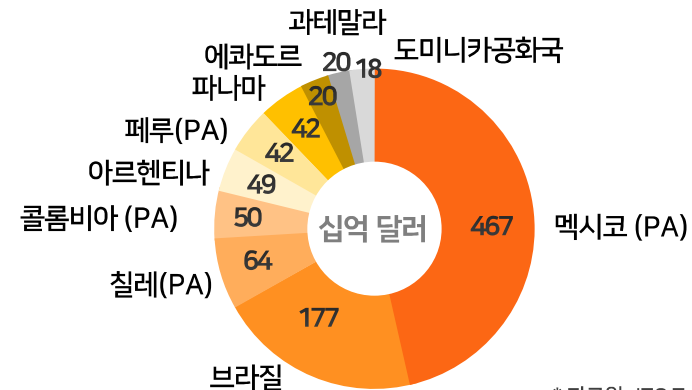
* 자료원 : ITC Trade Map



☑ 유가 하락, 수출 감소, GVC 붕괴 등으로 '20년 중남미 수출량은 최대 23%, 수입량은 25%까지 감소 예정 (CEPAL, '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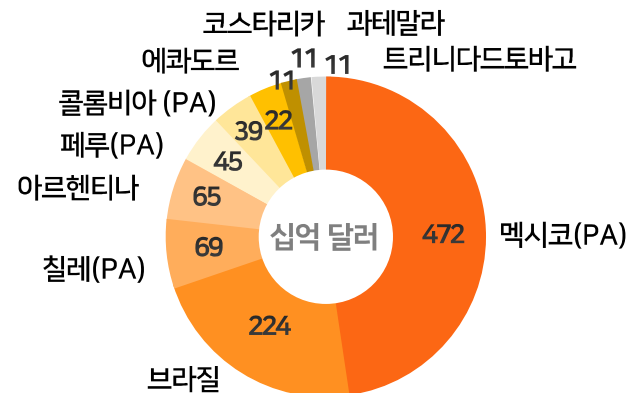
- '19년 기준 미국은 중남미 총 교역의 43%, 캐나다는 2.3% 차지 (ICT Trade Map)
-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중 통상분쟁 완화 및 다자주의 강조 등으로 중남미 교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

수입규모 기준 상위 10개국



* 자료원 : ITC Trade Map

수출규모 기준 상위 10개국



* 자료원 : ITC Trade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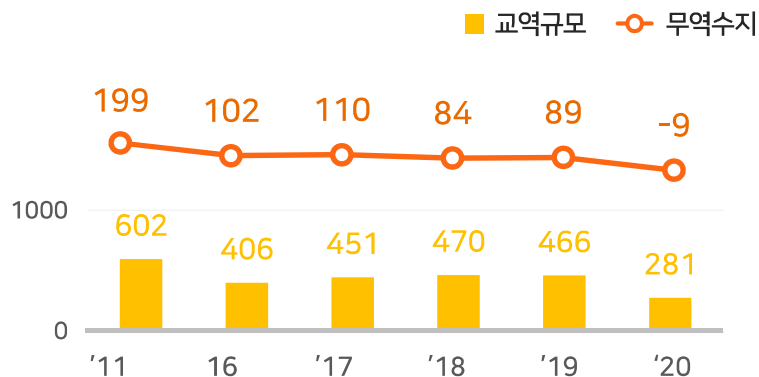
8. 한-중남미 경제 관계

중남미

한국과의 교역 관계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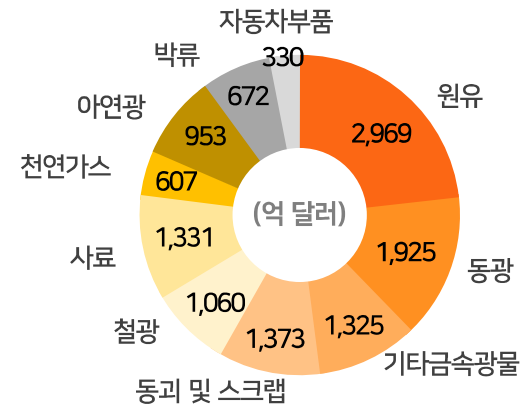
✓ '20년 코로나19로 인해 -33.5%의 수출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 30여년 이래 처음으로 무역수지 적자 기록

- 중남미 시장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효자시장

* '11년에는 對중남미 교역규모 602억 달러 및 무역수지 200억 달러 달성. 전체 무역흑자 308억 달러 중 2/3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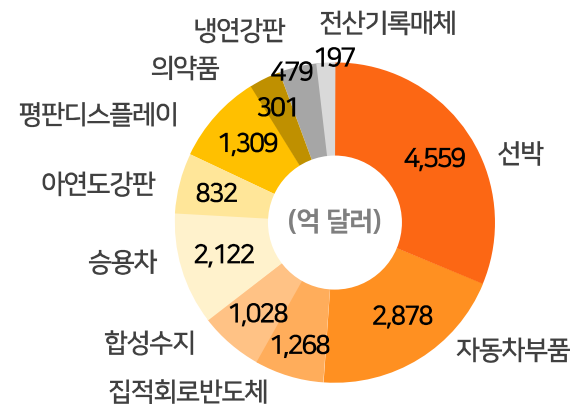
- 팬데믹으로 인한 중남미의 경제 불황과 봉쇄조치로 우리나라의 주요 대륙권별 수출실적 중 가장 큰 감소폭 기록

對중남미 10대 수입품목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對중남미 10대 수출품목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9. 한-중남미 FTA 네트워크

중남미

발효국가



협상중 국가



재개, 개시, 여건조성



[칠레] 우리나라의 첫 FTA ('04.4.1발효)



[페루] 한-페루 FTA 발효 ('11.8.1)



[콜롬비아] 한-콜롬비아 FTA 발효 ('16.7.15)



[중미] 한-중미 FTA 부분 발효 ('19.10)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19.10.1 발효)
파나마 ('21.1.1 발효 예정)



[남미 공동시장]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중



[에콰도르] 한-에콰도르 SECA 협상중



[태평양동맹]

-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위한 여건 조성 중
- 준회원국 가입시 멕시코와 FTA 체결 효과 기대

* 자료원 : www.fta.go.kr(2020년 11월 기준)

An aerial photograph of Rio de Janeiro, Brazil, showing the city's dense urban landscape and the bay. A semi-transparent grid pattern is overlaid on the image. The image is tinted with a warm, orange-brown color.

II

시장 변화양상

1. 경기부양책 및 인프라 확대정책

중남미

▶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재정정책

취약계층 소득 지원, 기업 자금 지원, 세금 감면, 정부 지출 확대 등



통화정책

기준금리 인하, 국채공급규모 축소 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 추진

→ But,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 수입 감소, 글로벌 금융조달 조건 강화, GDP 대비 높은 정부 부채 비율로 자원 마련이 과제

▶ 경기활성화를 위한 주요국 경기부양책 및 공공 인프라·프로젝트 확대 노력

① 멕시코



AMLO 정부, 경기활성화대책으로 대규모 인프라 투자프로젝트 계획 발표

- 2,973억 페소(138억 달러) 규모의 39개 민관합동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 발표

② 브라질



수십 여 개의 공기업 매각 추진 중

- 2,640억 헤알 규모의 투자자금을 115개의 프로젝트*를 통해 유치할 것으로 예상. 고속도로, 철도, 에너지 부문에 투자가 집중 전망

③ 페루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및 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 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 예산 배정
- 페루식 뉴딜정책,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규모 재정 투입

④ 칠레



'칠레는 회복한다' 경제회복 계획 발표

- 고용 인센티브, 투자, 중소기업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위주의 계획 마련

⑤ 콜롬비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3개 경기부양 액션플랜 발표('20.7)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선도기업 육성, 전자상거래 활성화, 서비스 수출액 확대 목표

⑥ 아르헨티나



포퓰리즘 정책 추진을 통한 경기활성화 도모

- 보조금 지급, 12~18개월 무이자 할부 등을 시행하여 소비 진작
- 고용창출 및 경기부양을 위해 통신망, 고속도로, 주택 등의 인프라 투자 계획

2. FTA 확대를 통한 시장개방 가속화

중남미

한-중남미 FTA 네트워크 확대

- ✓ 한-중미 FTA 완전 발효 (파나마는 '21.1.1 발효 예정)
 -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하여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 시장 선점효과 기대

기 체결한 칠레, 페루, 콜롬비아 FTA 및 협상 중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한-메르코수르 FTA 타결 시 중남미 대륙 전체로 FTA 네트워크 확대

USMCA 발효('20.7.1)

- ✓ 북미 시장의 수출 전진 기지 역할 강화
 - 승용차, SUV의 역내 가치 비중 62.5%에서 75%로 강화
 - 승용차의 40%, 트럭의 45%는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고임금 노동 창출
- ✓ 코로나19 이후 멕시코의 위상 강화
 -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으로부터의 자재 수급 차질로 공급망 붕괴, 보호무역의 기조 지속 등으로 기존 GVC가 RVC로 변화



3. 글로벌 제조거점으로 부상

중남미

▶ 멕시코, 북미 지역의 주요 제조거점으로 부상

▶▶ ① 북미시장 제조기반 공급망으로 부상

- ✓ 미-중 통상 분쟁, 팬데믹을 계기로 안정성·위기 대응 중심의 지역가치사슬(RVC) 재편
 - 최근 각국의 수출입규제에 더불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특정 국가의 조업중단이 전 세계 생산 중단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경험하며, 북미, 아시아, 유럽 등 권역별 공급망 조성 중
- ✓ USMCA, 자동차 관련 원산지·노동 규정 강화



▶▶ ② 니어쇼어링 거점

- ✓ 북미시장을 겨냥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장기화된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생산·수급 차질 사태로, 생산거점을 중국에서 멕시코로 이전 검토
 - 애플 아이폰 위탁생산 대만기업 페가트론 : 중국 생산라인을 멕시코로 이전 희망

▶▶ ③ 북미지역 가치사슬 편입

- ✓ 멕시코를 중심으로 중미·카리브 국가까지도 북미지역 RVC에 편입 가능
- ✓ 북미와 거리가 멀고 산업기반도 취약한 중남미 국가들은 원자재 등 전방 가치사슬 참여국으로 참가 기대

4. 비대면 경제 트렌드

중남미

비대면 디지털 경제 부상

전통시장, 오프라인 매장, 식당 등 대면 서비스 업종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부상

- ✓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기 방역대책으로 봉쇄 및 격리조치를 명령하고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수요가 급증



소비자

컴퓨터 및 주변기기, 태블릿 등 전산사무용기기 구매 증가
게임, 드라마 소비, 온라인 구매, 배달경제 수요 급증



기업

재택근무 장기화에 따른 각종 소프트웨어(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 메신저 등) 사용 확대



정부

대면 업무 불가에 따른 행정업무의 디지털 전환(전자정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 ✓ 낮은 인터넷 보급률 및 열악한 통신사정 개선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2019년 중남미 전체 인터넷 보급률은 66.7%이고,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계층의 인터넷 보급률은 81%인 반면, 소득 최하위층의 보급률은 38%에 불과
 - 교육기관 폐쇄로 온라인 교육이 장려되나, 디지털 인프라 접근에 대한 불평등, 동농격차 등으로 전반적인 학업수준 및 교육격차 확대 우려 존재

온라인 기반 사업 모델, 피할 수 없는 트렌드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며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수요증가

- ✓ 격리 조치로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비대면 거래방식 이용 급증
- ✓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중남미의 디지털 인프라 및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는 계기



멕시코

코로나19 이전 대비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가 3배
이상 증가



브라질

코로나19 이전 대비 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 수준이 두 배
이상 증가



콜롬비아

'20년 3~5월 전자상거래
매출의 주간 성장률이
평균 10% 상회

중남미 디지털 인프라, 린프로그(Leapfrog) 효과* 기대

* 린프로그 효과: 기술 낙후로 인해 기존의 정책이나 규범이 없어 이에 얽매이지 않고
최첨단 기술이나 시스템이 단기간에 실현되고 보급되는 것

-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기존 일자리의 실업 증가, 디지털 인프라 불균형 등의 한계 요인도 공존



Ⅲ

기회 요인과 진출전략

1.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중남미

한-중남미 FTA 네트워크 활용

- ✓ 한-중남미 FTA 분석 및 활용을 통한 유망품목 분석 및 시장 진출
 - 한국, 중남미 모두 미국·중국 교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교역 다변화가 필요
 - 한-중남미 간 발효된 FTA를 분석하여 유망산업별로 시장 진출에 활용
 - 협상 진행 중인 무역협정은 조기 타결될 수 있도록 꾸준한 여건 조성 요구

K-방역 CSR 등을 통한 진출기반 마련

- ✓ 코로나19 진단키트, 방호 물품 등 보건·의료 CSR 활동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제품 홍보
 - 현지 진단키트, 방호 물품 등 기부활동을 포함한 CSR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나라 및 기업 자체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제품 홍보 등에 활용
 - G2G, B2G 레벨에서의 CSR 활성화를 통해 국가 간 동반자 관계 형성

ICT 등 국내 선진시스템의 현지 수요 발굴

- ✓ ICT 활용 성공사례 전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제품 수출

브라질	디지털 변환(DT) 흐름 속 스타트업, 서비스 플랫폼 사업 진출
콜롬비아	정부 주도 DT에 따라 ICT 기술에 대한 수요 증가, 우리 IT 기술 현지진출 기회 확대
칠레	'22년까지 국가 디지털화 계획 추진, 사이버보안, 5G,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 협력 및 기업 참여 기대

인프라 개발, G2G, 방산 등 협력분야 확대

- ✓ 한-중남미 인프라 프로젝트, G2G, 방산, 스마트 시티 등 협력분야 확대

페루	방산물자, 인프라 PMO 등 다양한 G2G 수요 발생, 이에 대한 기업 참여 확대 가능
에콰도르	과야킬시 및 서울특별시 스마트시티 협력 MOU 체결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 이를 활용한 관련 기업 진출 도모

2. 한-중남미 FTA 네트워크를 통한 진출전략

중남미

한-중남미 FTA 네트워크



- ✓ 미-중 분쟁 장기화, 글로벌 교역 감소, 보호주의 기조 등 통상여건 속에서 한국과 중남미 모두 높은 미-중 교역 의존도에서 탈피하기 위한 교역 다변화 필요
- ✓ FTA를 활용한 유망품목 분석 → 산업별로 유망 시장 진출 → 경제 영토확장
- ✓ 협상 중인 FTA의 조기 협상 타결을 위한 여건 조성 →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진출 기반 마련

협상중

한-메르코수르 TA, 한-에과도르 SECA

여건 조성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주요 이슈 및 트렌드

협상 중·예정인 FTA까지 타결될 경우
사실상, 중남미 국가 대부분과 FTA 네트워크 구축

→ 한-메르코수르 TA

- 규모: 인구 2.9억 명, GDP 2.7조 달러
- 효과: 상호 보완적인 양측의 교역구조에 기반한 수출경쟁력 확보

→ PA 준회원국 가입

- 규모: 인구 2.3억 명, GDP 2조 달러
- 효과: 멕시코와의 양자 FTA 협정 체결과 동일한 효과 발생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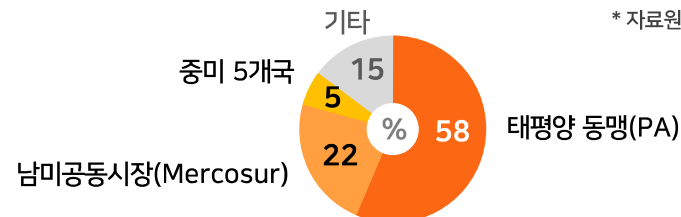
FTA 활용 가능한 유망품목 발굴 및 지역별로 차별화된
진출전략 필요

한국 : 자동차부품, 소비자재, 의료기기 / 중남미 : 원자재, 식품 등

-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한-중남미 교역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 특히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비대면 마케팅 수단 적극 활용

한국의 對중남미 교역액 중 경제권별 비중

* 자료원 : 외교부('19)



3. 가치사슬(GVC) 재편

중남미

▶ 자동차 산업의 북미 지역가치사슬(RVC) 편입을 위한 선제적 시장 진출



자동차 산업
시장 여건

- ✓ 미-중 통상분쟁 지속을 경험하면서 자국 구매 우선, 공급망의 안정성 강조
- ✓ 가치사슬이 가장 복잡한 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의 경우 북미 지역에서 멕시코가 유일한 생산기지
- ✓ USMCA 체제 출범('20.7.1),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 자동차 협정 체결, 브라질 Rota 2030 정책 등의 통상정책 및 규정에 따라 자동차 관련 제품의 수출보다 현지에 직접 진출 및 생산이 유리

01. 현지 자동차 산업 공급망 구조 분석을 통한 전략

Tier2/Tier3의 현지 투자 진출 유망

- ✓ 우리나라와 같이 제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OEM회사 밑에 1, 2, 3차 협력사들이 차례로 많아지는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
 - 멕시코 내 OEM 기업과 그의 1차 협력사(약 600개사)는 다수 진출. Tier2의 경우 미국에서 대부분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3차 부품들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다이아몬드형 구조
 - 이에 한국의 Tier2/3 기업들이 멕시코로 진출하여 현지에서 직접 생산·공급하거나, 멕시코에 이미 거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현지기업과 공동생산·기술교류를 통한 기반 구축 필요

02. 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한 진출전략

현지 완성차 및 Tier1 대상 상시 마케팅 추진

- ✓ 멕시코시티무역관(GP 센터 운영) & 상파울루무역관 활용
 - KOTRA 해외무역관을 중심으로 현지 기진출한 완성차 및 Tier1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과의 협력 수요를 상시 발굴
 - 특히 멕시코는 향후 북미시장의 생산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 장기적 차원에서 현지 직접 투자진출 검토 필요

4. 새로운 소비 트렌드 등장

중남미

뉴노멀 시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뉴노멀 시대, 새로운 소비 트렌드

- ☑ 봉쇄조치에 기반한 각국 정부의 초기 방역 조치로 격리 장기화, 이동제한
 - 비대면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홈코노미 소비재 등의 수요가 급증



비대면 서비스

재택근무 및 온라인 수업 시행에 필요한 화상회의 플랫폼, 클라우드 등 디지털 솔루션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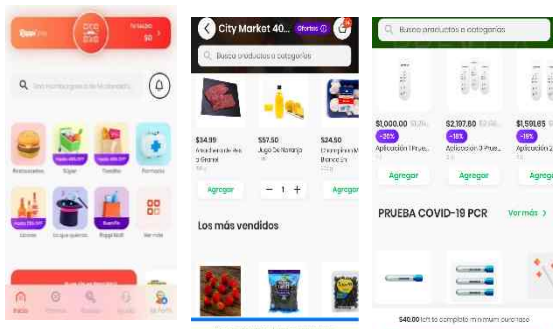


홈코노미

자택 체류시간 증가로 생활 소비재, 특히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구, DIY 제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

COVID-19
면역증진제품
홈오피스위생습관강화
개념있는소비
HomeOffice
배달서비스

온라인 구매문화 정착으로 인한 디지털 시장 확대



* 중남미 대표 배달어플 서비스기업 Rappi 어플 메인화면

- ☑ 팬데믹으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확산되면서 중남미 온라인 판매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
- ☑ 각국 정부의 경제봉쇄로 인해 오프라인 영업이 제한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진출, 온라인 영업은 기업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변화로 간주
- ☑ 저렴한 인건비 이점을 활용한 배달경제가 활성화
 - 콜롬비아 대표 배달서비스 기업 라빠(Rappi)는 자국 내에서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65% 이상 이용 급증
 - 우버잇츠(Uber Eats), 글로보(GloVo) 등 중남미 전역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배달경제가 보편화

4. 새로운 소비 트렌드 등장(진출 전략)

중남미

진출전략 ①

한류를 활용한 K-소비재 마케팅 공략

- ✓ 주요 콘텐츠 플랫폼(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이용 보편화로 K-Pop, K-드라마 한국문화 관심 및 한류 팬 증가로 한국 제품(화장품, 생활 소비재, 가전, 식품 등)에 대한 인지도 상승으로 연결
- ✓ 중남미 내에서도 한류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가 다수 존재하여, 이들을 통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용해 제품 노출 가능
- ✓ 단, 아직까지는 중남미 소비자들은 가격 경쟁력을 중시하고, 중국산, 자국산 제품 대비 한국 제품은 가격이 비교적 높아, 기존 시장에 없는 아이디어 제품 또는 상류층을 겨냥한 프리미엄 제품 개발이 필요

진출전략 ②

온라인 유통망과 연계한 디지털 마케팅 중요

- ✓ 중남미 대표 온라인 플랫폼인 Amazon, Linio 등의 플랫폼에서는 주로 과거 제품 판매 이력이 있는 벤더를 통한 입점이 대다수이며, 플랫폼 직접 입점보다 현지의 유력 벤더나 유통망을 발굴하여 진출하는 것이 유리
- ✓ 초기 마케팅, 특정 제품의 경우 현지 등록 절차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벤더 발굴이 중요
- ✓ KOTRA 중남미 소재 무역관은 한국 소비재 진출을 위한 유력 바이어 발굴, 인플루언서/SNS 마케팅 등 비대면 마케팅 사업 지원 중

5. 보건의료시장 유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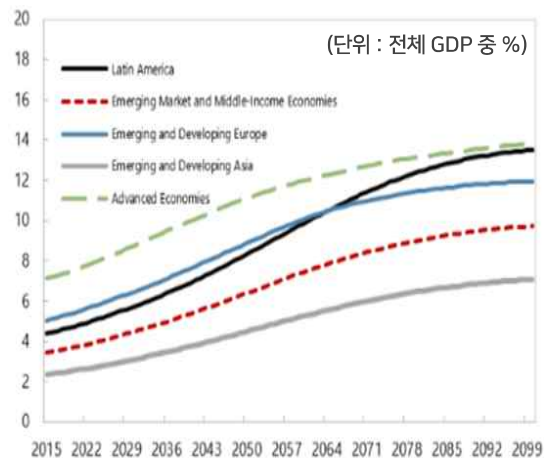
중남미

➤ 보건 · 의료 시장의 전략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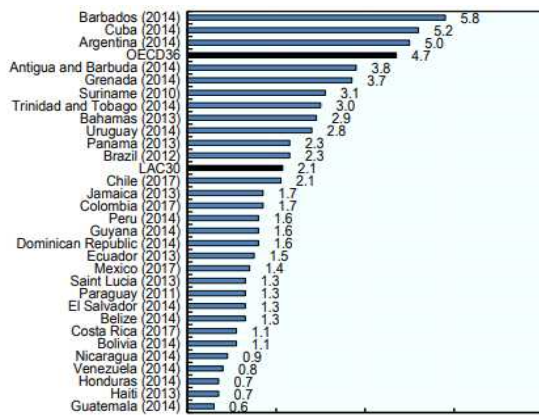
- ✓ 코로나19를 계기로 드러난 중남미 보건·의료 환경의 취약성
- ✓ 1인당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 추세이나, 의료 시설 및 의료서비스 부족
- ✓ 중남미는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 ✓ 도시화에 따른 비만 문제도 심각

보건의료분야 지출 비중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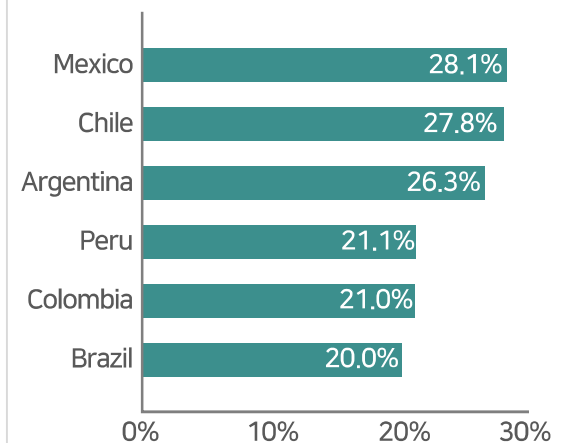
*자료원 : IDB

주요국별 인구 1천명 당 병상 수



*자료원 : OECD Health Statistics 2019,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9

전체 인구 중 비만인구 비중



*자료원 : 2020 Latin America
boasts high growth areas(Bioaccess)

5. 보건의료시장 유망(진출전략)

중남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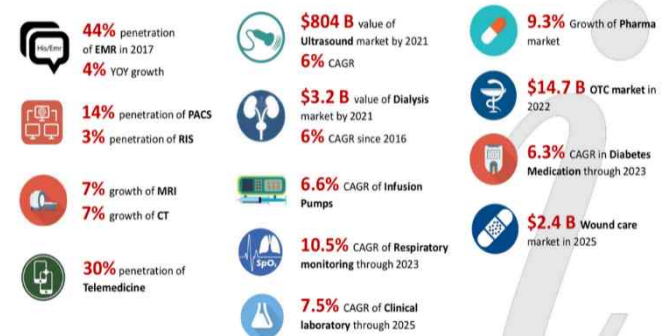
진출전략

멕시코, 브라질, 페루 등 중남미 다수 국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신흥시장

- ✓ 이동제한, 외출금지 및 의료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원격 의료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의료 시스템 비대면화에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
- ✓ 범미보건기구(PAHO), IDB 등 국제기구 및 다자간개발은행이 중남미 코로나19 확산세 제재 및 검사·예방을 위한 자원 조달 중
- ✓ 역내외 국가 간 국제 공조 구축과 중남미 각국의 공공조달 확대 전략을 주시하여 이를 활용한 시장 접근 가능할 것으로 기대
- ✓ 유망품목
 - 심혈관 관련 질환 진단용 MRI, X-ray 등의 진단 기기
 -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질환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혈압, 혈당측정기

[중남미 의료시장의 주요 성장 분야]

▶▶ Latin America boasts high growth areas



*자료원 : 2020 Latin America boasts high growth areas(Bioaccess), GHI



진출 TIP



인증

복잡한 인증절차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 벤더 또는 에이전시 활용 필요



유통

현지 A/S 네트워크 부족 극복 필요, 민간 보험회사, 공공부문 등 차별화되고 유통망 발굴 필요



마케팅

중남미 주요 보건·의료 관련 전시회 참가를 통한 현지시장 동향 조사 및 바이어 발굴이 필요



IV

수출 및 투자 성공 · 실패 사례

1. 수출 성공 사례

중남미

멕시코 수출 성공 사례



철저한 A/S 지원으로 시장 선점

- ✓ 코로나 진단검사키트 제조업체인 M사는 진단키트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으나, 현지에 수출키트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수출키트 및 장비로 선공략
- ✓ M사가 전략을 수정함에 따라 멕시코 주요 주정부에서 관심을 보이며 주정부 차원에서의 인증, 통관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 및 지원
- ✓ 국내기업은 특히 A/S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앞세우며, 구매 전부터 제품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구매 후에도 멕시코를 직접 방문하여 바이어의 신뢰도 제고
- ✓ 현지 주정부는 국내기업의 제품을 재구매하며 A/S의 중요성 시사

엘살바도르 수출 성공 사례



최소구매수량에 대한 원활한 대응

- ✓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인위생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기존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항균, 멸균 제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 엘살바도르 바이어는 주재국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을 겨냥한 가정용 UV 살균 소독기 100대 구매
- ✓ 엘살바도르의 1인당 GDP는 3,350달러 수준이지만, 양극화가 심해 한국산 소비재는 중산층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인구도 650만 명에 불과해 한국기업이 요구하는 MOQ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
- ✓ 해당 거래는 한국 기업이 바이어의 긴급 수요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해 성약으로 이어진 건으로, 한국과는 다른 상거래 관습 이해의 중요성 시사

2. 수출 실패 사례

중남미

과테말라 무역사기 피해 사례



이메일 해킹을 통한 수출대금 결제사고

- ✓ 국내기업 B사는 과테말라 바이어 C사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진행함
- ✓ 바이어 C는 국내기업 담당자에게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거래 은행에 문제가 생겨 대금을 미국 은행으로 이체해달라고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고, 큰 의심없이 신규 계좌로 대금을 송금
- ✓ B사와 C사는 뒤늦게 이를 인지하였으나, 해당 대금은 인출된 후였고, C사의 거래 은행에서는 최종 은행이 미국에 소재하고 있어 미국에 금융사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
- ✓ 이러한 해킹 사건은 기술적으로 귀책사유를 가리기 어렵고, 제3국(미국)에서 금융사기사건에 대한 신고 및 기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이 최선의 대응책

멕시코 수출 실패 사례



레드오션 손 소독 시장

- ✓ 코로나19 발생 후 멕시코 내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호물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3~4월 품귀 현상 발생
- ✓ 다수의 국내기업이 멕시코 시장 진출을 희망하여 바이어에게 샘플을 송부하였으나, 코로나19로 현지 통관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소량 품종 반입 난항
- ✓ 통관 지연 등 행정비용으로 바이어와의 교신이 지연 되었으며, 적정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실기(失機)함
- ✓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대거 멕시코로 유입되었고, 현지 생산도 본격화됨에 따라 제품의 판매 단가가 하락해 A사 제품 또한 구매에서 배제

3. 투자 성공 사례

중남미

파나마 투자 성공 사례



지리적 요충지를 물류 거점으로

- ✓ 파나마 지사 설립 이후 약 40년간 에콰도르 등 인근 중미국까지 관할하며 시장 확장 중
- ✓ 최근 파나마 내 콜론 자유무역지대 물류기지를 활용하여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항발 재수출 전략 추진 중
- ✓ 바이어와 협력하여 한-중미 FTA를 통한 관세 인하를 홍보하고, 중고가 수입품 타이어 취급 바이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 활동 등 브랜드 인지도 확산 전략 구사
- ✓ 북미-중남미 및 태평양-대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파나마의 이점을 살려 물류거점으로 활용

멕시코 투자 성공 사례



USMCA 발효 전 선점 진출

- ✓ E사, 자동차 부품(차량전선 및 배선 등) 생산을 위한 멕시코 내 생산법인 설립
- ✓ 현지 주정부와 협상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받았으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산업진흥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면세 등의 지원 수혜
- ✓ USMCA 발효 전 선점 진출로, 북미 내 해당 제품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



4. 투자 실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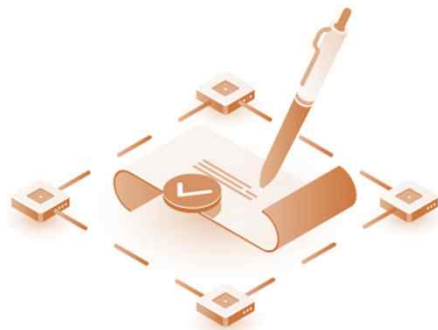
중남미

브라질 투자 실패 사례



허술한 독점계약으로 진출기회 상실

- ✓ '14년 브라질에 진출한 A사는 기존 바이어와의 총판 계약을 통해 브라질 시장에 진출 후, 시장 확대를 위해 생산설비 투자 진출 및 직접 영업활동을 시도하였으나 기존 총판계약을 체결한 바이어와의 계약문제로 수년간 영업활동에 제약
- ✓ '14년부터 브라질 경기침체가 시작되어 해당 업체도 직격탄을 맞아 A사는 수주 감소 및 생산량 감소로 공장 가동 중단



에콰도르 투자 실패 사례



현지 투자진출 시 세법, 회사법, 노동법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 필요

- ✓ 정부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는 한국 기업 중 진출 초기 현지 세법, 회사법, 노동법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진출했다가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 다대
- ✓ 투자진출 전 반드시 현행 법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중과세 방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부가세 환급 등 제반규정 검토 필요



부록 1: 수출유망품목 [상품]

중남미

> 멕시코

품목명	HS Code	수입 관세율 (%)	선정사유
자동차부품	8708	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 내 자동차 생산 및 수출 지속적 증가
화장품	3304	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처분 소득 증가로 피부관리 제품 관심 증가 스킨케어 시장규모는 약 17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이스 케어용 화장품이 절반 가량을 차지 - 바다용품 및 자외선 차단제, 유아용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음 미디어를 통한 한국 콘텐츠 노출 증가로 K-Beauty 수요 증가 예상
의료기기	9018	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미 및 중남미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기지 역할
마용기기	8536	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규모가 17억 달러이며, 2027년까지 44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코로나19로 가정에서도 사용 가능한 제품이 각광
태양에너지 (태양광패널 등)	841919, 8541.40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 전기의 31%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며, 이중 태양에너지가 4.3% 차지

부록 1: 수출유망품목 [상품]

중남미

▶ 브라질

품목명	HS Code	수입 관세율 (%)	선정사유
자동차부품	8708	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자동차 부품은 對브라질 수출품목 중 큰 비중 차지• 기어박스는 수출 1위 부품이고, 2019년 기준 자동차부품 (기어박스) 수입량은 전체 4위
화장품 (스킨케어)	3304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남미 최대의 화장품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킨케어 분야에선 브라질이 8번째로 큰 시장이며, 2019년 8% (134억 헤알) 성장- 스킨케어 연매출은 2024년까지 연평균 6% 성장 전망
의료기기 (초음파 영상기기)	9018	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의료기기 시장은 전년 대비 4% 성장하여 약 116억 9,000만 달러 규모 기록• 인구 2억의 중남미 최대 보건의료 시장을 보유• 특히 초음파 영상진단기기의 1위 수입대상국은 한국
진단용 시약	3822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카 바이러스 등 전염병 증가에 따라 혈액이나 소변 반응 등을 통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시약 수요 증가

부록 1: 수출유망품목 [상품]

중남미

▶ 콜롬비아

품목명	HS Code	수입 관세율 (%)	선정사유
의약품	3004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약품 수입시장 꾸준한 성장세 유지<ul style="list-style-type: none">- '20년 7월 기준 콜롬비아의 對韓수입은 190만 달러로 의약품 총 수입액의 2.2% 차지- 최근 3년간('18~'20) 콜롬비아의 의약품 對韓 수입은 증가세이며, '19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32.1% 증가
의료기기	9018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나라 對콜롬비아 의료기기 수출액 전년대비 33.96% 증가 ('20.7기준)• 관련 품목에 대한 수입의존도 높음
무선통신기기	8517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5G 통신망 확대, 5G 통신망 신규 도입으로 통신기기 수요 증가 전망
하이브리드 자동차	8703	1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세금 혜택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율 증가

부록 1: 수출유망품목 [상품]

중남미

> 칠레

품목명	HS Code	수입 관세율 (%)	선정사유
자동차부품	8708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칠레는 자동차 제조가 전무하여, 교체 주기가 짧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증가
화장품	3304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산층 증가로 인한 구매력 증가로 화장품 수요 증가세
의료기기	9018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수요 상승
태양광 패널	841919, 8541.4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칠레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절반 가량이 태양광 발전
LED 전등	9405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 효율성 높이는 지능형 LED 조명 인기 급상승

부록 1: 수출유망품목 [상품]

중남미

> 페루

품목명	HS Code	수입 관세율 (%)	선정사유
자동차부품	8708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차 수입규제로 인한 자동차 부품시장 확대
화장품	3304	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전시회 경험이 있는 대형수입상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 추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류 영향으로 젊은 계층 수요 발생 관세율이 0%에 수렴하여 진출여건 양호
의약품	3004	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페루 의약품 수입시장은 '18년 13%, '19년 9%의 성장률 기록하는 등 확대 추세
건설·중장비	8659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산업은 '19년 GDP의 13%를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수출대비 광물수출은 60.2%
합성수지	제39류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투자 재활성화 프로젝트로 건설경기 상승 수 억대 규모의 정부긴급자금으로 부처별 건설 프로젝트 대폭 재가동 예정 주요 석유화학제품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 한국산 석유화학제품 증가세 유지 합성수지(수입3위), 정밀화학원료(수입6위)

부록 1: 수출유망품목 [서비스]

중남미

▶ 멕시코

품목명	선정사유	진출방안
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도시에 거주하는 의료소외계층을 위해 원격의료지원시스템 개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보급, 인터넷망 확장 등으로 원격의료기기, 솔루션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테크 사용률 증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핀테크 법률을 준수하는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진출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산업은 지리적 강점 및 정책 지원 등 향후 추가성장에 좋은 여건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분야 진출 유망 (예) 냉동창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인한 재택학습 조치로 에듀테크 분야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용 플랫폼 등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한 진출
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의 한류 팬 존재, 한국에 대한 관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NS를 이용한 홍보 및 콘서트 등을 통한 시장 확대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

부록 1: 수출유망품목 [서비스]

중남미

▶ 브라질

품목명	선정사유	진출방안
물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류비용은 높으나, 제3자 물류비중은 낮은 편으로, 전문적인 물류서비스 분야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물류업체와 제휴를 통한 브라질 시장 진출방안 모색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억 인구를 보유한 브라질 교육서비스는 시장규모 대비 수준이 매우 낮아 향후 높은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평가 경제·사회 개발 정도가 낮은 북부 및 북동부 지역의 교육시장 성장 잠재력이 크며, 한국식 교육을 동경하는 풍조 존재 StartSe에 따르면 2018년에는 680만명이 브라질 수능 시험인 ENEM에 응시했지만, 실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는 340만 명으로 응시자 절반은 대학에 미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지역마다 소규모 고등교육기관이 다수 존재,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용이, 외국계 그룹의 브라질 대학 인수를 통한 고품질 교육 공급 가능
IT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설팅 업체 IDC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은 세계 IT 투자 대상국 중 9위를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Futurecom 와 같은 기술 박람회 참가하여 현지 시장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현지 기업들과 네트워킹 필요

부록 1: 수출유망품목 [서비스]

중남미

▶ 콜롬비아

품목명	선정사유	진출방안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를 위한 투자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콜롬비아 신재생 에너지 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온라인 교육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기관간 협력을 통한 진출

부록 1: 수출유망품목 [서비스]

중남미

> 칠레

품목명	선정사유	진출방안
의료 기기 (원격의료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고령화,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매년 의료분야 소비지출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웰빙, 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로 가정용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전망이 매우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의료는 1993년부터 시작되어 긴 역사 자랑 대다수 칠레 의료인들이 유럽과 미국에서 수학했기에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
SW - 사이버 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칠레 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되고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여 기업, 특히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급증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에 맞춰 디지털 정부화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해 정부 간 협의를 통해 국내 우수 사이버 보안업체의 칠레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필요 또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의 직접 시장 진출(금융, 전자상거래 보안 등)도 매우 유망

부록 1: 수출유망품목 [서비스]

중남미

> 페루

품목명	선정사유	진출방안
건설 프로젝트 PM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시장 진출 유망 • PMO 프로젝트는 자재비용 등과 같은 공사비용이 없어 순수익이 높은 사업으로 분류 • 주로 레퍼런스에 의한 수주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PMO 경험이 없는 한국기업은 참여가 어려움 • 페루정부(교통통신부 등) 발주 프로젝트(판아메리칸게임, 신공항 건설, 메트로 3,4호선 등)의 PMO사업이 G2G로 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기업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MO발주관련 예의주시가 필요 • 정부간 계약으로 주로 진행
IT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치안·교통시스템 개선방법에 대해 각종 지자체에서 스마트시티형 솔루션을 도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인콰이어리 발굴을 현지 주페루 대사관 및 KOTRA 리마무역관에서 진행 중이며, 팀코리아 등을 구성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

부록 2: 2021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중남미

무역관	주요 사업명	일시 / 장소
과테말라	소비재 진출지원 팝업 스토어 개최	상반기 / 과테말라
	관할지 진출 지원 사업	연중 / 과테말라
	FTA 붙임 활용 사업(사절단, 상담회 등)	연중 / 과테말라
리마	2021년 페루 주요 IT 인프라 프로젝트 온라인 설명회	2021.3월 / 온라인
	G2G 플랫폼 확대 사업	2021.6월 / 리마 및 볼리비아
	2021 한-페루 화장품 무역사절단	2021.9월 / 리마
	방산·보안 네트워킹 및 진출 지원 사업	2021.11월 / 리마
멕시코시티	티후아나 치과/의료기기 온라인 무역사절단	2분기
	포스트 코로나19 상품 지원사업	2분기
	멕시코 Korea Auto Plaza 2021	3분기
	GP 센터 운영	연중
	멕시코 관광분야 소싱데이	3분기
	2021 온라인 서울푸드(Seoul Food)	2분기
	온라인 스마트팜 시장개척단	3분기
	멕시코 남부 농수산업 온라인 시장개척단	3분기
	코로나19상시화상상담 지원사업	연중
	한-멕 수교 60주년 기념 행사	미정
	CCE-KOTRA 경제협력 세미나 및 화상상담회	미정

부록 2: 2021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중남미

무역관	주요 사업명	일시 / 장소
부에노스아이레스	의료기기/장비 수출상담회	상반기 / 부에노스아이레스
	K-뷰티 수출 상담회	상반기 /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자동차 부품 전시회 연계 수출 상담회	상반기 / 부에노스아이레스
	우루과이 수출 상담회	상반기 / 우루과이
산티아고	2021년 종합 전략무역사절단	2021.9월 중순 / 11월 초순(잠정)
상파울루	2021 오토맥 전시회	2021.4.6-4.10
	한-브라질 스마트 시티 플라자	하반기
	코리아 테크 웨비나 포럼	하반기
아바나	2021 쿠바주간행사(Cuba Week in Korea)	2021.5월 / 서울
	2021 한국주간(Korea Week in Cuba)	2021.11월 / 아바나
	한-쿠바 경제발전공유 사업(KSP)	연중 / 서울, 아바나
	쿠바 한류문화 행사	하반기 / 아바나
	KSP 연계 CSR사업	4분기 / 아바나

부록 2: 2021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중남미

무역관	주요 사업명	일시 / 장소
아순시온	해외 유망품목 전략무역사절단	하반기 / 아순시온
	K방역 진출 웨비나 및 상담회	2분기 / 아순시온
	유망 소비재 유통망 입점 지원사업	2-3분기 / 아순시온
	파라과이 지역 유망상권 개척사업	연중 / 아순시온, Ciudad del Este 등
	정부 친환경 사업 계획 웨비나	연중 / 아순시온
	한국 EPC 기업 초청 상담회('20년 후속)	1-3분기 / 아순시온
	한국 전력기자재 기업 초청 상담회('20년 후속)	2-3분기 / 아순시온
	공공조달 시장진출 맞춤형 지원	연중 / 아순시온
	파라과이 ICT 인프라 도입 지원 웨비나	3-4분기 / 파라과이
	글로벌 CSR 사업 추진	연중 / 아순시온, 엔카르나시온 등
키토	에콰도르 과야킬市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미정
	코로나19 및 전염병 대비 역량강화지원	미정
파나마	2021년 파나마 종합박람회	미정
	한-중미 FTA 활용 미개척 유망시장 수출상담회	미정
	카리브해 도서국가, 미개척 유망시장 수출상담회	미정
	파나마 대형 유통체인 협업 화장품 및 소비재 쇼케이스	미정

감사합니다

중남미지역본부장 | kotra

